

# 수용과 충돌

- 한국 드라마 열풍 이면의 문화적 시차<sup>1)</sup>

張海明\*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 이해의 특별창구: 한국 드라마
3. 타자의 시선
4. 문화적 시차
5.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최근 몇 년간, 한국 드라마의 중국내 방영이 확대되면서 한류열풍은 이전 보다 더욱 뜨거워진 새로운 고조기를 맞고 있다. 한국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자 드라마의 줄거리와 극중 인물은 이미 중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핫이슈가 되었고, 한국 드라마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템들 또한 언론이 앞 다투어 보도하는 대상이 되었다. 수많은 신문잡지, 웹사이트, TV 방송 등에 심지어 고정 칼럼까지 생긴 가운데, 늘 연예면의 톱뉴스를 차지하는 한국 드라마는 보는 것 뿐 아니라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유행이 되었을 지경이다.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정주부나

1) 본고는 2005년 11월 19일 고려대학교 일본학 연구센터 주최, 국제 학술 심포지엄- '<타자>와 문화표상'에서 중국어로 발표된 것을 번역한 글임.

\* 北京師範大學 中文係 教授

도시 화이트칼라, 그리어 대학생 등에 관해서는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국드라마는 중국의 영화와 TV 방송 관련 인사들에게는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들에게 중국 문화산업의 상황과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는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드라마 붐은 또 다른 잠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한중문화교류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 드라마가 절대다수 중국인들에게 한국을 이해하는 사실상의 특수한 창구가 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가정과 사회, 나아가서 역사와 문화를 보게 되는데, 과거에 뉴스보도를 통해서 접했던 한국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면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은 훨씬 구체적이고 감성적이다. 그런데 한국이 사실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라마 밖의 정보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 역사와 현실 조건의 차이로 말미암아 양국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견해가 충돌하게 될 때, 한국 드라마에서 형성된 이런 상상 속의 이미지에 또 어떠한 왜곡과 변형이 생겨날까? 그리하여 한국 드라마 붐이 일고 있는 동시에, 브라운관 밖의 인터넷에서는 ‘중국인이 보는 한국’, 또는 ‘한국인이 보는 중국’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물론 감정적인 성격이 다분한 것이지만, 극단적인 점을 배제하고서 이런 논쟁들을 한국 드라마 열풍과 오버랩 시켜보면, 양국 문화교류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양측의 정서와 여망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나아가 상호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한국 이해의 특별창구: 한국 드라마

역사상의 이유로 1980년대 이전까지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극히 제한되

어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오해까지 존재해 왔다. 주중한국대사 김하중은 저서 『떠오르는 용, 중국』에서 집필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거의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편견과 왜곡된 사실만으로 중국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노라니 심히 우려가 되었다. 특히, 양국은 과거 50여 년간 줄곧 완전한 단절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이해는 그들이 중국에서 몸소 체험하거나 중국인들과 서로 접촉하면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 대부분이 서구 언론의 중국 대륙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나 홍콩 혹은 타이완의 왜곡된 정보를 통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인의 이러한 편견은 아마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sup>2)</sup>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김 대사는 중국을 소개하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의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중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다.’

김 대사가 여기에서 말하는 상황은, 반대로 지난 1980년대까지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데올로기에서 대립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류마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의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거의 무지에 가까웠고, 그들 인식 속의 한국은 여전히 1950년대 한국전쟁 시에 각인된 교전 중인 적성 국가에 불과했다. 이와 상대적으로 중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훨씬 깊은 편이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1992년 한중수교 이후부터 중국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과 달리, 중국인들은 개혁개방을 겪으면서 아시아 경제의 비약하는 ‘네 마리의 용’으로서 한국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한반도의 다른 한쪽에서 발생한 거대한 변화를 금세 알게 되었다.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에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1988년의 서울올림픽이었다. 정부 측 관방 매체의 증가된 보도를 통해 중국인들은 한국의 정치, 경제, 스포츠, 그리고 문화 등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2) [한국]金夏中, 『騰飛的龍』(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4年 第3版) 7쪽 참조.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중국인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엄청난 민족적 응집력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위기 앞에서 돋보인 한국인들의 애국심에 대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경외감을 표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중국인들은, 개혁개방 초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 중에, 한국으로부터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특히 경제적인 도약을 실현하고,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과 민족문화 및 전통의 보존 등에서도 성공한 한국을 중국의 학습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밖에도 양국 간의 오랜 역사적 유대, 유사한 근대화 과정의 경험, 그리고 동일한 동북아 문화권 국가로서의 친밀감 등의 요인들이 또한 자연스럽게 양국 관계를 가깝게 하였는데, 그것은 놀랄만한 속도로 진전되었다. 김하중 대사가 각국 외교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말처럼 “한·중 양국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관계가 단지 수교 이후 10여 년만이 아니라, 2천여 년 동안 역사, 지리 및 문화면에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온 까닭이며, 그럼으로써 비로소 오늘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sup>3)</sup>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한국 드라마가 중국대륙에 상륙하였다. 1993년 중국 CCTV가 첫 번째로 한국 드라마 『질투』를 방영하게 된다. 그러나 반향은 거의 없었다. 그 후로도 수년간 한국 드라마는 중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7년 CCTV가 『사랑이 뭐길래』를 방송하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한국 드라마는 비로소 중국 시청자들의 감성을 폭넓게 자극하기 시작했다. 연이어 지방단위 TV방송국에서 방영한 『별은 내 가슴에』, 『진실』, 『연풍연가』, 『해바라기』, 『가을동화』, 『이브의 모든 것』, 『호텔리어』 등 한국의 청춘스타드라마는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수입된 이후, 첫 번째의 절정기를 만들어냈다. 통계에 따르면, 2002년도까지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무려 67편에 달한다. 같은 해에 상영된 영화 『엽기적인 그녀』는 이 기세를 더욱 몰아치게 했다. 이 해 이전에 ‘한류’라는 용어가 일부

3) 김하중 대사 中國人民大學 연설 인용. <http://news.r.xjtu.edu.cn/040107/article/05-04/12926.htm>

젊은 시청자 층 사이의 제한된 용어로 사용되었다면, 이때부터 ‘한류’는 보다 폭넓은 중국인들에게 확실한 존재감을 심어주었다.<sup>4)</sup> 상술한 트렌디 드라마의 뒤를 이어, CCTV가 수입해 방영한 한국의 홈드라마인 『목욕탕 집 남자들』, 『보고 또 보고』, 『인어아가씨』 역시 또 한번 중국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 방송된 『상도』와 『명성황후』, 2005년에 방송된 『대장금』 등 역사를 소재로 한 한국 드라마는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2004년 한 해만 따져도, 중국의 다양한 TV방송국이 방송한 한국 드라마는 100편 이상이다. 더욱이 한국 측의 발표에 의하면, 2003-2004년간 중국 대륙에서 상영, 또는 방영된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무려 359편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CCTV의 통계에 따르면, CCTV의 ‘해외극장’프로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한국 드라마만 총 11편(도합 428회)을 방송하였는데, 이는 1년 총 방송 분량의 63.69%에 달하는 것이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 ‘해외극장’ 프로를 통해 나간 일본드라마는 단 한 편도 없었다. 또다른 통계에 의하면 최근 CCTV ‘해외극장’프로에서 방영한 외국 드라마 중, 중국 시청자들의 인기를 가장 많이 받은 1, 2위 드라마는 다름아닌 한국의 드라마 『인어아가씨』와 『명성황후』였는 바, 그 득표율은 각각 70.45%와 28.69%로서 3위인 이탈리아 드라마 『지혜』(0.3%)를 압도적으로 상회한다. 한국 드라마가 대거 몰려들면서 한류는 비로소 중국 가정의 안방까지 스며들었는데, 그 결과는 또한 공전의 히트로 나타났다.<sup>5)</sup>

이와 같이 해서 한국 드라마는 보통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특수한 창구가 되었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으로 관광을 떠나는 중국인들도 날로 늘어나고, 한·중 양국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많은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지만, 대다수 일반 중국인들에게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경로이다. 앞서 언급한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제목에서 쉽게

4) 1999년 11월 한국 댄스그룹 클론의 중국 공연이 성공을 거두자, ‘韓流’라는 용어가 여러 매체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5) 張國濤, 『日、韓電視劇在中國傳播及其審美文化思考』, [http://bbs.mbg.cn/topic\\_26602.html](http://bbs.mbg.cn/topic_26602.html)

발견되듯이, 아이돌스타를 내세운 트렌디 드라마가 반응이 크긴 하지만, 구체적인 영향력을 비교하자면 오히려 흥드라마 또는 사극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한국 드라마처럼 고유의 특색을 드러내지 못한 일본의 트렌디 드라마에 중국 관객들이 싫증이 나 있던 탓도 있지만, 그 보다는 가정의 윤리의식이나 역사적인 소재를 다룬 드라마가 한국 현대사회의 현실과 역사적 맥락을 더 많이 전달한다는 점 때문인데, 이는 중국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훨씬 그들의 기대치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런 부류의 한국 드라마를 수입한 한국과 중국의 관계자들이 이 점을 사전에 의식했는지에 상관없이, 이는 분명 최근에 한국 드라마가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대다수 중국인의 마음속에, 한국은 중국의 근린(近隣)이자 오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부유한 아시아 국가이며, 중국이 거울삼아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중국인들은 한국이 경제와 사회의 변혁 과정에서 일찍이 겪었던 일들이 중국이 현재 혹은 미래에 접하게 될 과정이라 여기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 반영된 한국 가정과 사회적 상황이 내일의 중국가정 혹은 사회의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믿기도 한다. 물론, 한국 드라마가 중국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대해 기대하는 미적 감성에 맞아 떨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중국 드라마와 사극이 단일주제에 편중함으로써 생긴 공백 또한 한국 드라마가 광범위한 중국의 시청자들을 흡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해야 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다.

### 3. 타자의 시선

중국의 매스미디어가 최근에 다루는 한국 드라마 열풍에 관한 보도를 보면, 심지어 업계 내부의 관련인사들이 그 배경을 설명할 때조차, 예외 없이 한국 드라마

에 담겨진 내용과 중국 고유문화와의 동질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바로 많은 한국 드라마가 중국의 전통 유교의 도덕 윤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실은 중국인 자신만의 관점과 느낌임을 자각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인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과 그를 통해 한국을 바라보는 것 모두에서 '타자'의 시선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못 한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일반적으로 '타자'(Others)는 '자아'(Self)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탈식민주의적 용어로서 '타자'는 서구인의 눈에 들어오는 서구의 것과 다른 모든 존재를 말하는 일종의 서구 중심주의적 인식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서 '타자의 시선'은 외부에서 들어온 가치의 척도로 자기 민족의 문화와 그 밖의 것을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타자'가 '자아'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자아의 식이 분명한 민족에게는 기타의 민족이 모두 자기와 다른 '타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양자 간의 차별성은 단지 그 민족에게 모종의 자기 우월감이 존재하는가, 그리하여 '타자'에 대해 경멸의 심리를 품고 있는가 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하나의 민족이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민족을 인식하거나 이해하고자 할 때, 인식 당하는 민족의 입장에서 그것은 일종의 '타자의 시선'이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른바 '타자' 혹은 '타자의 시선'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예컨대 한중, 중일, 한일 사이에는 서로 일종의 '타자' 관계를 공유한다. 중국인이 한국인을 보든지 아니면 한국인이 중국인을 보든지, 당연히 모두가 자신의 시선을 취할 것이지만, 관찰을 당하는 쪽으로 보면 그것은 '타자의 시선'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한편의 동일한 한국 드라마를 한국인이 보는 것과 중국인이 보는 것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돌스타가 출연하는 트렌디 드라마에 대해서, 중국의 시청자, 특히 여성 시청자들은 배우의 성형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그 결과로 성형 붐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밖에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물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인터넷으로 올라 온 어떤 글을 보면, 『노란 손수건』

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갈비 가격의 진위에 대해 궁금해 한다. 중국과 달리 한국의 드라마에서 갈비는 값비싼 선물로 그려지며 갈비를 선물 받은 사람은 중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기쁨을 나타낸다. 유사한 문제는 과일 가격, 음식가격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생활 속의 소소한 세부사항은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보통 별다른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지만 중국 시청자들에게는 흥미진진한 화제 거리가 되는 것이다. 많은 중국 시청자들은 『쉬리』,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 한반도의 남북 대치상황을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해서도 특별한 흥미를 보인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영화가 한·중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1950년대의 전쟁 체험을 내면의 깊은 성찰로 이끌어내고, 전쟁의 승패를 초월한 남녀의 사랑과 형제의 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영화는 한국 현지에서도 호평을 얻지만, 중국 관중에게도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인터넷에 올려진, “태극기는 싫지만 나의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감독은 이런 영화를 통해 50여 년 전의 전쟁을 돌이켜본다.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 장면과, 집과 형제를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산의 아픔, 그리고 형제애를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죄악을 고발한다.…… 역사 속의 정부, 그리고 집권자에게, 감독은 영화를 통해 무언의 불만을 표하고 항의한다.” 또 다른 ‘천하무적 한국 드라마에서의 중국인 이미지’라는 인터넷 글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 중국 군인이 출현하는 장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 영화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중국 군인의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고 말한다.

중국 관객은 확실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타나는 중국의 이미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많은 중국의 팬들을 유감스럽게 하는, 심지어 분노케 하는 점은 한국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중국의 이미지가 대개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영화 『무사』에서의 명나라 관리의 이미지, 드라마 『상도』에서의 중국 상인의 이미지, 드라마 『명성황후』에서의 청 왕조의 이미지 등등이 모두 이리하다. 중국 시청자들이 『명성황후』를 좋아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은 드라마에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에 대한 혐오감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내용이 편집되었기 때문이며 만약 중국에 수출된 방송내용이 한국에서와 똑같았다면 중국에서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는 최근의 『대장금』에 대한 비평에도 드러난다. 중국에서 방영된 『대장금』은 분명 전에 없는 히트작이다. 그러나 드라마에 노출된 역사에 대한 왜곡, 예를 들면 장금이 마취약을 발명하여 세계 최초로 외과 수술을 한다느니, 한국인이 침술을 발명하였다느니 하는 내용은 중국 시청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잘 알려진 배우 장궈리(張國立)가 한국 드라마를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가장 큰 원인은 『대장금』에서처럼 한국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 드라마나 '한류'를 배척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본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다. 우선 관영의 주류 매체로서는 한국 드라마를 들여옴으로써 중국 문화산업에 무언가 득이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요, 또한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확실히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 있어서 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인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 인식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한국인가, 한국 드라마가 알려주는 한국이 실제의 한국과 어느 정도 서로 일치하는가, 그리고 중국인들이 영화나 TV를 통해 인식한 한국이 그들이 직접 체험하는 한국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대다수 중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로부터 얻은 한국인에 대한 인상은, 예의바르고 정과 의를 중요시하고, 민족적 자부심이 많으며 진취적이라는 등이다. 심지어 어떤 평론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청순하고', '깨끗하다'고까지 말한다. 폭력이나 섹스 장면이 거의 없고, 흡연 장면조차도 보기 드물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인상은 아마 장홍지에(張宏杰)의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글의 한 구절로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이런 상상을 해 보았다. 한국인들이 황하 상류의 물을 끌어들이어 한

강으로 흘러들게 한다. 물길이 짧고 유속이 빠르며 지면이 경사져 있어, 한강 물 대부분은 맑고 투명함을 유지한다. 바다로 흘러 들어갈 즈음에야 비로소 다소의 오염이 발생할 뿐이다. ……한국인과 접촉해보면, 당신은 한국인의 몸에 중국 춘추시대의 인물 같은 기질이 내재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강직하고 정의를 중요시한다. 그들의 본성은 심각한 오염에서 벗어나 있다.<sup>6)</sup>

이것은 중국인이 보는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이자, 중국인들이 보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감동하곤 하는 한국인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에 중국에 대한 멸시와 추악한 묘사, 그리고 역사 왜곡 등이 수시로 튀어나온다면, 중국 시청자들이라고 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한국인을 평가할 수 있을까? 실생활에서 만약 한국 기업주가 중국 직원더러 무릎을 꿇게 한다거나, 혹은 서울의 어느 상점에서 “중국인 사절”이라는 공고를 붙인다고 한다면, 중국의 한국 드라마 팬들은 또한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필자도 이런 상상을 해 보았다. 중국의 영화인이 『뉴욕의 북경인』, 『도쿄의 상해인』을 찍었던 것처럼, 오늘날 누군가가 『서울의 중국 동북인』<sup>7)</sup>이라는 영화를 찍는다면, 그것은 또 어떤 내용일까?

#### 4. 문화적 시차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다.” 이것이 ‘타자의 시선’이다. 문화적 시차는 이러한 곳에서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문화적 시차는 사실 관찰자 자신의 역사와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전장에서 제시한 마지막 인용문에 관해 다시 이야기해볼까 한다. 솔직히 말해서

6) 張宏杰, 『中國人比韓國人少甚麼』(中國文史出版社, 2004년 9월 초판),  
[http://book.sina.com.cn/longbook/1097736052\\_\\_hanguo/21.shtml](http://book.sina.com.cn/longbook/1097736052__hanguo/21.shtml)

7) ‘동북’은 만주지역을 가리킴. 여기서는 한국에 연변 출신이 많은 것을 비유함(옮긴 이)

필자가 처음으로 이 말을 찾아낸 것은 한국의 칼럼니스트 박승준 선생이 『조선일보』에 쓴 ‘중국인이 분노하는 이유’라는 시사평론 중에서였다. “중국인이 한국인을 알보는가? 아니다. 그들은 한국인을 좋아한다. 장홍지에라는 중국 작가가 작년 10월에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중국인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한국인에 대한 경외의 심리를 쓰고 있다. 책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한강물은 맑고 투명하다. 마치 한국인들이 황하 상류의 물을 끌어들이 한강으로 흘러들게라도 하듯이 ……한국인과 접촉해보면, 당신은 한국인의 몸에 중국 춘추시대의 인물 같은 기질이 내재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강직하고 정의를 중요시한다. 그들의 본성은 심각한 오염에서 벗어나 있다.’<sup>8)</sup> 그렇다. 장홍지에의 지적을 액면 그대로 보면 분명 중국인이 한국인을 좋아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박승준 선생이 어떤 근거에서 그 책이 ‘중국인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한국인에 대한 경외의 심리를 서술하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호기심 끝에 인터넷에서 이 책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결과는 이러하다. 우선 책 속의 일부 견해가 인터넷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작가 장홍지에가 우선 자기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바로 우리 국민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장점으로 중국의 단점을 공격하려는 데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아홉 개 손가락으로 중국의 한 개의 손가락을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중국의 다른 아홉 개의 손가락에 대한 설명과 인정이 결여되어 있다. 때문에 이러한 비교는 보편성이 떨어지거나 다소의 편파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나의 목적은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용과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이보다 더 분명한 설명은 없다. 작가의 의도는 ‘한국의 장점으로 중국의 단점’을

8) 朴勝俊, 『朝鮮日報』사이트 : [http://chinese.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1/04/](http://chinese.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1/04/)

공격하는 데 있으며, 그 스스로 또한 책 속에 서술된 양국의 비교가 ‘보편성이 떨어지거나’ 편파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박승준 선생은 이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한다. 장흥지에의 원문에 있던 “물길이 짧고 유속이 빠르며 지면이 경사져 있어, 한강 물 대부분은 맑고 투명함을 유지한다. 바다로 흘러 들어갈 즈음에야 비로소 다소의 오염이 발생할 뿐이다.”는 내용은 생략된 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강의 물은 맑고 투명하다”고만 인용하였다. 왜 그럴까? 이 몇 마디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한국이 비하되거나 왜곡된다고 생각했을까? 이러한 것이 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지 않는 것은 보지 않는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이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일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서울의 지하철역 혹은 지하철 차량 안에서 이런 포스터를 볼 수 있다. 즉, 서울시의 중국어 명칭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포스터에는 한국사람, 일본사람, 서양사람이 있고 중국사람도 있다. 모두가 자기들의 고유 의상을 입고 있다. 중국인인 필자에게 있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점은 포스터 속의 중국 남성이 뜻밖에도 청나라 때의 옷차림이라는 것이다. 청나라 식 두루마기에, 동그랗고 작은 모자를 눌러쓰고, 변발까지 늘어뜨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인의 인상 속에 있는 중국인의 이미지라는 말인가? 지난 세기, 신해혁명이 청나라의 군주제를 전복시킨 이래로 도대체 어떤 중국인이 이런 옷차림을 중국의 민족의상으로 여긴단 말인가? 만약 이런 이미지가 서양 영화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는 아마 그것을 그들의 편견 혹은 무지의 결과라 여길 수 있겠지만, 명나라의 멸망 이후 ‘소중화’를 자처하던 한국이, 근대사에서 중국과 서로 같은 처지를 겪었던 한국이,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각 분야에서 중국과 더없이 밀접하게 왕래하고 있는 한국이, 뜻밖에 이러한 시선으로 중국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필자로서는 백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불과 몇 년 전, 정확히 말하면 2001년에 중국에서 개최된 APEC회담에서, 참석한 각국의 지도자들은 관례에 따라 주최국인 중국의 전통의상을 입었고 이는 당시에 해당국마다 뉴스로 보도되었다. 포스터를 그린 사람이 설마 이런 사실을 몰랐

단 말인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서울시의 이런 착오에 대해 필자는 차라리, 이것이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이와 유사한 문제가 중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무의식중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때가 있다. 비록 그것이 결코 우리의 본의가 아니라 해도 말이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1980년대 중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적인 도약을 실현한 ‘네 마리의 용’ 가운데 하나였다. 굳이 네 마리의 ‘용’이라고 했던 것은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모두가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유교문화는 또한 ‘용’의 고향인 중국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결정적으로 한국과 나머지 삼자간의 중요한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즉 홍콩, 타이완은 본래 중국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싱가포르 역시 화교가 그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나름대로 좋은 의미에서, ‘네 마리의 용’ 중 첫 번째로 한국을 꼽지만, 한국인이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박승준의 말을 인용한다면 “타이완과 홍콩, 싱가포르를 모두 ‘용의 후손’들로서 중국인이 개척한 지역이지만 한국은 아닌” 것이다.

김하중 대사는 그의 저서에서 한중 양국의 왕래는 ‘혈연적이고 문화적인 친근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인이 한국인을 보았을 때의 첫 인상은 한국인이 사실은 자기와 한 가족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한국인의 성씨 중에 일부는 중국에서 기원하였으며, 한국인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일부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모 대통령의 본적은 중국 산둥성(山東省)이고, 모 외교부 장관이 공자의 후예이며, 또 다른 한 분의 총리는 강태공의 후손이다. 이 때문에, 종친을 중요시하는 중국인으로서의 자신과 같은 가문의 사람이므로 친근감을 배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김 대사는 이 점을 양국 국민이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sup>9)</sup> 필자는 김 대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9) 金夏中, 위의 책, 160쪽 참조.

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스러운 것은 어느 날엔가 필자가 같은 성씨를 가진 한국인과 만났을 때 중국인의 관습대로 그에게, “한 번에 두 개의 ‘張’자를 동시에 쓸 수 없듯이, 5백 년 전 우리는 한 집안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한국인이 좋아할까? 중국인은 의식하지 못한다. 그가 한국인과 자신이 같은 뿌리이고 같은 문자를 쓴다고 말할 때, 한국인으로 하여금 대국의 소비니즘을 느끼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똑같은 말이라도 한국인인 김 대사가 말하면 한국인들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중국인이 말한다면 결과는 정 반대로 나올 것이다. 이런 까닭에, 드라마 『명성황후』에서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라는 대사가 나와도 한국 시청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한중 양국이 공동 제작한 드라마 『북경 내 사랑』에서 중국 배우가 “당신들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한 한마디에 수 백 통의 항의 전화가 TV방송국에 빗발처럼 걸려왔던 것이다. 문화를 초월한 전파와 수용 면에서 보면, 문화적 시차의 존재는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동서양 사이에 문화적 시차가 존재하듯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양국이 대치했던 역사적 사실, 토지 면적과 인구의 차이, 그리고 경제발전의 차이 등등은 모두 문화적 시차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가 기존의 역사를 고칠 수 없고, 국토면적과 인구수의 차이를 바꿀 수 없으며, 경제발전의 차이 또한 단기간 내에 변화시킬 수 없는 한, 문화적 시차는 계속 존재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적 시차를 인정하면서 문제를 고려할 때, 역지사지의 태도로 가능한 한 서로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문화적 시차가 문화적 편견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물며 경제의 글로벌화, 문화의 글로벌화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의 상황은 타 국가와 민족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이해에 미증유의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은가?

## 5. 맺는 말

어떤 의미에서 문화적 시차의 존재는 좋은 현상일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잘 이해하게 하는 동시에 또한 자신을 잘 알 수 있게 해 준다. '타자의 시선'이 마치 거울의 한 면처럼 '자아'의 상을 굴절시키므로, 굴절된 상과 '자아'의 심리 예측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각도에서 '자아'의 이미지를 확인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국 드라마 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보자. 본고를 쓰는 중에 인터넷을 보다가, 베트남 정부 측 인사가 한국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대량으로 방송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베트남에 관한 프로그램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해 불만을 나타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런 상황이 만약 개선되지 않는다면 베트남에서 한국 TV프로그램 방송을 금지할 수도 있다." 심지어 "베트남에 수입된 다른 한국 상품에 대해 무역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과 동남아 일대를 휩쓴 '한류돌풍'이 무역마찰로 확산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한다. 한국의 『조선일보』 홍콩 특파원 송의달 기자의 논평 「동북아에서의 '반한류(反韓流)'에 대한 우려」에서는 중국대륙, 홍콩, 타이완 그리고 일본에서, 반한류를 넘어 이미 '한류혐오(嫌韓)'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상술한 국가, 지역의 한류 인기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귀결짓는다. 우리는 한류가 왜 현 상황으로까지 변형되었는지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 한다.

비교적 납득하기 쉬운 이유로는 상호 문화교류의 불평등함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경제가 확산되는 오늘날의 문화교류는 이미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니라, 문화무역의 의미를 띠고 있으며, 문화무역 수지가 적자일 경우 그에 대응하여 문화보호

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할리우드를 견제하면서 자국의 영화와 TV산업 발전에 매진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국과 주변지역의 이러한 반응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방송되는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촬영된 드라마를 거의 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인 자신조차도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유명 텔런트 차인표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문화는 쌍방향의 교류여야 한다. 요즘 중국에서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국 드라마를 거의 볼 수 없다. 이는 매우 불공평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중 양국 배우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현재의 일방적인 문화교류의 상황을 개선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 밖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는 한국인 스스로가 깨닫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한류에 대한 일종의 강한 자기 우월감이다. 예를 들면 한국 학자 이은숙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결코 유럽의 문화로 통하는 교량이 아니다. 그 자신이 목적지이다. 이 목적지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바로 중국이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문화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sup>10)</sup> 성공회대의 백원담 교수는 『동아시아에 몰아닥친 한류』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류는 대다수 중국인이 우리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우리와 교류하는 현대화 과정이라기보다는, 중국인이 그들의 문화적 쇠퇴의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한류의 흥기로 인해 우리는,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잠재력에 있어서는 알볼 수 없지만 문화면에서는 대단히 척박하고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1)</sup> 이 두 한국 학자의 견해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와 어조는 상대방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왜 우리는

10) [한국] 李銀淑, 『중국의 한국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수용(中國對韓國電視劇和電影之接受)』, <http://www.culstudies.com>

11) 중국학자 沙蕙, 「韓劇縹緲着一條看不見的戰線」, 『藝術評論』(2005年 第10期) 인용.

평등한 마음으로 대화를 개진할 수 없는가? 나는 중국학자들이 이에 대해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비록 한국 학자들의 말이 ‘차마 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느낄 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한 성찰은 필요하고 유익한 것’<sup>12)</sup>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자기 우월감이 수시로 드러나고, 게다가 앞에서 서술한 한국 드라마에서 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등이 빈번해진다면, 설령 대등한 문화 무역의 상황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한국 드라마와 한류에 대한 거부가 특히 일반인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다.

공자는 말하기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고 했다. 필자는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는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문제에서 쉽사리 공통점을, 적어도 일치하는 점을 찾아서 취하고, 어긋나는 점은 잠시간 보류해 둘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필자는 또한 진심으로 바라는 바가 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인이 한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구가 되어 한국을 알아 가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하듯이, 중국 드라마 역시 한국인이 중국을 이해하는 창구로 활용되어 봄 직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상호간에 좀 더 많이 수용하면서 충돌을 줄여간다면, 그 부대효과는 양측간 문화 무역의 액면적인 수치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이는 양측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학계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 <中文提要>

近年来韩剧在中国大陆及港台地区的热播早已成为媒体和评论界关注的课题, 而从比较化学的角度看, 围绕韩剧热引发的讨论实际上正反映了跨文化交流过程中必然发生的认同与抵

12) 위의 책 참조.

触。因此，存在某些文化视差并不足怪，如何在求同存异、相互尊重的基础上加深理解、扩大交流才是我们真正应探讨的问题。

关键词 韩流、韩剧、他者的眼光、文化视差